

웹진 번역과 그라이스 대화 격률 적용의 유용성: 코리아나 아랍어판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경(한국의국어대학교)

1. 서론

홀(Hall, 1976)은 인간의 정신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의 문화를 다루며, 문화권별로 상이한 논리체계와 소통체계를 고찰한다.

문화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인간과 외부세계 사이에 고도로 선택적인 스크린(screen)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는 수많은 형태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과 무시해야 할 것을 정해준다. 문화의 스크리닝 기능은 정보 과잉(information overload)으로부터 인간의 신경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Hall, 1976, p. 85 [필자 역])

홀(1976)에 따르면 어휘·문법과 같은 언어 코드가 아닌, 문화적 맥락이 정보 과잉을 처리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끈다(pp. 85-88). 이를 번역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번역 과정에서 원천텍스트의 정보는 목표 문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걸러지고 재구성되어 번역문에 담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화용론에서 말하는 맥락 의존적 의미(context-dependent meaning)와도

*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조국현 교수님과, 필자의 크나큰 부족함을 채워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련이 있다. 번역을 원천텍스트 속 의미를 목표텍스트로 구현하는 행위로 본다면, 이 때의 의미는 목표텍스트의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이 맥락을 판단하는 행위가 홀(1976)이 말한 문화적 스크린인 것이다.

번역학에서 화용론 층위의 맥락을 다룬 연구는 하팀과 메이슨(Hatim & Mason, 1990, pp. 59-97)과 베이커(Baker, 1992, pp. 235-278)가 대표적이다. 하팀과 메이슨(1990)은 텍스트를 생산자와 수용자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번역의 사전 단계인 텍스트 분석에서 화용적 맥락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베이커(1992)는 번역을 다시쓰기(rewriting)의 일환으로 보아, 수용자를 고려한 맥락 의존적 의미 전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 두 연구는 화용론적 층위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라이스(Grice, 1975/1989)가 제안한 대화 격률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¹⁾

본 연구는 번역 연구에서 그라이스 대화 격률의 유용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검토하고,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텍스트유형과 언어쌍으로 이론의 유용성 여부를 검증해보려 한다. 연구의 목적은 대화 격률을 적용하여 아랍어로 번역된 웹진 기사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유지·첨가·생략 양상을 분석해 보고, 스코포스 중심 번역에서 이러한 관점의 번역 분석이 유용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그라이스의 협력의 원리와 대화 격률

화용론의 초석을 이룬 언어 철학자 그라이스(1975/1989)는 언어 행위를 인간이 수행하는 이성적 행위의 일부로 보고,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돕는 기본 원리로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와 대화 격률(Conversational

1) 하팀과 메이슨(1990)은 그라이스 대화 격률을 활용한 번역 분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나, 베이커(1992)는 격률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둘의 관점 차이에 대해서는 2장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추가 설명한다.

Maxims)을 제안한다.

1. 협력의 원리: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가 지닌 공인된 목적이나 진행 방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화의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만큼의 기여를 하라.

2. 대화 격률:

질(Quality)의 격률: 당신의 기여가 참된 것이 되도록 하라.

- 1)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 2) 타당한 증거가 부족한 것을 말하지 말라.

양(Quantity)의 격률:

- 1)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
- 2)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관련성(Relation)의 격률: 관련성 있는 것을 말하라.

태도(Manner)의 격률: 명료하게 말하라.

- 1) 모호한 표현을 피하라.
- 2) 애매함을 피하라.
- 3) 간결하게 말하라.
- 4) 질서있게 말하라. (Grice, 1975/1989, pp. 27-28 [필자 역])

제시된 대화 격률은 일반적인 경우에 원활한 대화 수행을 위해 권장되는 기본 원칙이다. 다만 황(Huang, 2014)의 설명에 따르면, 개별 격률은 상황에 따라 화자에 의해 준수(observance)되거나 의도적으로 위반(flouting) 또는 불이행(violation)될 수 있다. 이 때 의도적인 격률 위반은 대화 함축(implicature) 생성 등 또 다른 의사소통 목적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pp. 29-31).

번역을 텍스트 기반의 의사소통 행위로 본다면, 번역 과정에서 특정 격률을 준수하거나 위반하는 것 또한 하나의 번역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격률의 성격을 고려하면, 반드시 격률을 준수할 때에만 타당한 번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격률을 위반하여 특수한 의사소통 효과를 내는 것이 더 타당한 번역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 웹진 기사문의 아랍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i)번역 과정에서 대화 격률이 준수, 위반, 미이행된 경우를 구분하고, (ii)대화 격률

에 기반한 목표텍스트 다시쓰기가 해당 텍스트의 스킴포스에 적합한 번역이었는지를 분석한다. 이 때, 네 가지 격률 중 아랍어 번역문과 관련성이 높은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라이스는 질·양·관련성·태도의 격률을 동일 층위에 놓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에 초점을 맞추되, 두 격률의 역할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우선, 양의 격률은 제1항(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과 제2항(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을 기준으로 번역에서의 정보 유지 또는 변동(첨가·삭제)을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한편 관련성의 격률은 번역된 정보가 텍스트의 주제에 직접 기여하는가(준수), 아니면 의도적 일탈을 통해 함축을 유발하는가(위반)를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²⁾. 이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3장에서 보충하여 설명한다.

2.2 번역 연구에서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이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 연구에 그라이스(1975/1989)의 대화 격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베이커(1992, pp. 249-254)는 대화 격률이 모든 문화권의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격률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텍스트 유형과 언어쌍에서 드러나는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를 모두 번역사의 격률 위반 행위로 해석한다. 마테오(Mateo, 2005, pp. 225-226) 역시 대화 격률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보며, 대화 격률이 담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도구로 쓰려면 목표 문화 의사소통 패턴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하딤과 메이슨(1990, pp. 62-64, 93-97)은 맥락의 화용론적 층위를 설명하면서 번역의 효과성·효율성과 관련성, 아이러니 번역 문제를 대화 격률과 연관짓는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그라이스의 이론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이 번역사의 역할이다.³⁾ 마르갈라(Margala, 2009, pp. 87-88) 또한 문학 텍

2) 관련성의 격률은 특정 정보의 주제 관련성 유무나 정도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화자(본고에서는 번역 행위자)가 준수, 위반, 불이행하게 되는 격률이다.

3) 하딤과 메이슨(1990)에서는 대화 격률 중 양과 관련성, 질의 격률을 적용한 번역 평가 예시를 제공하며, 방법의 격률에 대한 사례는 언급하지 않는다.

스트 번역에서 원문의 함축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대화 격률 이론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도 그라이스의 이론을 원안 그대로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마테오(2005)의 의견과는 다르다.

국내에서도 대화 격률 이론을 수정하여 번역 연구에 응용할 것을 제안한 사례가 있다. 김도훈(2012)은 그라이스 이론 원안대로는 상이한 문화간의 소통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응용한 번역 격률(Translation Maxims)이 번역 연구에 더 유용하다고 주장한다.⁴⁾

그러나 반대로 조의연과 조숙희(2018)는 번역 연구에서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대화 격률의 실현 양상이 문화에 따라 개별적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 오히려 김도훈의 번역 격률이 지닌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의연과 조숙희(2018)는 베이커(1992)의 예시를 활용하여, 번역에서의 첨가와 생략 현상을 도착어 문화의 개별성을 고려한 번역사의 격률 준수 또는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⁵⁾ 구상분(2023) 역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현대소설 텍스트의 영한번역에서 문체 구현 및 평가 기준으로써 방법의 격률을 적용하고, 대화 격률 이론의 번역 연구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이론이 모든 텍스트 유형과 언어 조합의 번역 연구에서 유용한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본 연구는 텍스트유형과 언어쌍에 따라 대화 격률을 적용한 번역 분석이 적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하여, 웹진 기사문이라는 특정 텍스트유형⁶⁾의 아랍어 번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해당 이론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의연과 조숙희(2018)와 마찬가지로 번역 과정에서의 생략과 첨가 현상을 다루며, 질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은 다루지 않는다. 번역사가 문화간 차이와 화용적 맥락을 고려하여 정보를 재구성한다 하더라도, 정보

4) 김도훈(2012)은 스톨제(Stolze, 1992, 김도훈, 2012에서 인용됨)의 부등성 개념에 착안하여 상이한 문화권의 두 언어 사이의 번역을 ‘특수한 의사소통 양식’으로 규정하고, 처방적 성격의 번역 격률(양·질·관계·방법)을 고안하여 제안한다.

5) 조의연과 조숙희(2018)에서도 베이커(1992)와 마찬가지로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을 다루며, 방법의 격률을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6) 번역 연구에서 웹진 기사문 텍스트 유형이 다루어진 사례는 『코리아나』 기사문 속 문화 관련 어휘의 아랍어 번역 양상을 분석한 김재희(2008)가 유일하다.

의 질은 아이러니(irony) 번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화 격률에서 태도의 문제는 결국 문체(style)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번역 문체 연구에서 다루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에 초점을 맞추어 다국어 웹진 기사문의 아랍어 번역본을 분석한다.

2.3 코리아나 웹진 매체의 특성과 번역 작업의 구조

웹진(Webzine)이란 웹(web)과 매거진(magazine)의 합성어로,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잡지를 일컫는다.⁷⁾ 지류 잡지의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인터넷 기술과 소통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웹진 『코리아나』(Koreana)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이 한국을 해외에 소개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계간지이다. 한국어뿐 아니라 10개 외국어판이 함께 발간되어⁸⁾ 약 150개국의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중인 공신력있는 한국학 웹진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코리아나』 발행을 위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총괄 편집위원회와 언어별 편집위원회를 둔다. 총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어판(원문)이 준비된 후 영어와 아랍어를 포함한 총 10개 외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한다. 아랍어판의 경우, 번역사가 작성한 아랍어 기사를 원어인 감수자가 1차로 검토하고, 이후 아랍어 편집위원장이 2차로 종합 검토하여 완성한다. 기사문 번역에는 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를 졸업한 석·박사급 전문 인력 5-6인이 참여한다. 아랍어 편집위원장 역시 한국어-아랍어 번역 및 감수 경험이 풍부한 교수급 전문가가 도맡아 왔다.⁹⁾

7) 웹진의 사전적, 학문적 정의가 미흡하여 홈페이지와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으나 『코리아나』는 그 형식과 내용이 웹진에 부합한다.

8) 2024년까지 10개 외국어로 번역판이 출간되었으나 2025년 봄호부터는 한국어판과 영어판만 제공 중이다. 본 장에서의 설명은 다국어 번역이 이루어지던 2025년 이전의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9) 아랍인 감수자의 교정은 어휘·문법적 층위에 한정되며, 아랍어 편집위원장의 검토는 어휘·문법적, 텍스트적 층위와 더불어 편집부와의 조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번역문 작성 및 수정 단계에서 번역사와 감수자, 편집위원장은 서

10개 외국어로의 번역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나, 영어판 번역문이 상대적으로 빨리 완성되어 타 언어 편집위원회에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영문본 활용 지침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번역사마다 활용 방식이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아랍어 번역본이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매 권호마다 또는 개별 기사문마다 번역 상황이 늘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유지 또는 첨가·삭제 현상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 결정 주체가 명백히 누구라고 특정하기 애매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코리아나』 웹진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¹⁰⁾ 등을 활용해 번역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 관점에서 연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번역 구조를 인지하되, 작업 결과물인 아랍어 기사문을 그라이스의 양·관련성의 격률을 활용해 한국어 원문과 비교 분석하고, 번역 연구에서 대화 격률 이론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사실 관계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연구의 주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조정을 결정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번역에서, 번역 과정에서’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체를 ‘번역사’라고 하기로 한다.

2.4 코리아나 웹진 기사문의 특성과 스코포스

『코리아나』 기사문 번역에서 고려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텍스트 유형이다. 해당 웹진의 기사문은 라이스(Reiss, 2000, pp. 24-43)의 텍스트 유형론에 의거해 단순 분류하기 어려운 복합 유형, 즉 다기능적

로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나 운영 방식은 언어별 번역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고의 설명은 아랍어 번역판 제작에 국한된다. 아랍어판 제작 구조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랍어 편집위원장과 의 대면 인터뷰, 2 년여간 기사문 번역을 담당했던 전문번역사와의 유선상 인터뷰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10) 라투르(Latour, 1990/1996) 등이 제시한 개념을 뷔즐랭(Buzelin, 2005, pp.195-199)이 번역학에 적용 시도하였다. 번역을 단순히 번역사 개인의 언어적 전환 작업이 아니라, 출판사, 에디터, 원작자 등의 인간 행위자(human actors)와 원작 텍스트, 판권, 계약서, 예산, 플랫폼, 번역 보조 도구 등의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s)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생산 과정으로 규명한다.

(multi-functional) 텍스트이다(Fawcett, 1997, pp. 104-111; Hatim & Mason, 1990, pp. 139-140). 우선, 이 텍스트는 비한국인 독자에게 한국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에 정보적(informative) 성격을 띤다. 그러나 시인, 작가 등 문인들이 저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문체가 표현적(expressive)이고, 화제성있는 주제들을 다루며 문화 체험을 장려하므로 작용적(operative)이기도 하다. 다기능적 텍스트인 만큼 요구되는 번역 전략도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기능적인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텍스트의 스키포스(skopos)를 고려할 수 있다. 스키포스는 라이스와 페르메어(Reiss & Vermeer, 1984/2013), 노르트(Nord, 2006) 등이 정의한 용어로, 번역의 목적 또는 목표를 의미한다. 스키포스를 중시하게 되면 목표텍스트를 둘러싼 모든 실용적 맥락 요소는 번역 행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텍스트 수용자이다(이근희, 2009, p. 63). 스키포스를 고려한 번역은 목표텍스트 중심주의적 번역이라고도 일컬어지며(이향, 2008, pp. 433-435), 이때 번역사는 목표텍스트에 적합한 번역 전략을 선택하고 구사할 수 있다. 특히 먼데이 등(Munday et al., 2022, pp. 201-203)에 따르면, 출판 번역에서는 번역의 주안점이 “목표어로도 잘 읽히는지(read well)”로 귀결되곤 하는데, 『코리아나』 역시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이므로 외국어 번역판 독자들에게 얼마나 잘 수용되는가를 고려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된다.

『코리아나』 기사문의 스키포스는 ‘비한국인 독자에게 한국의 문화·사회·예술·일상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하되(정보적 기능), 감수성이 담긴 문체를 통해 한국 문화 고유의 분위기와 정서를 느끼게 하고(표현적 기능),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작용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다국어 번역본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스키포스를 달성하려면 고도의 번역 전략이 요구된다.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문체적 특질을 살리고 생소한 내용의 수용성도 높이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분석대상 및 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학 웹진 『코리아나』 특집기사 다섯 편의 한국어본과 아랍어본을 주된 비교 대상으로 하되, 영어본을 부수적으로 참고한다.¹¹⁾ 분석한 텍스트는 2019년 봄호 ‘사찰음식: 미망과 욕심을 버리는 길’ 특집기사 다섯 편이다. 선정된 텍스트는 모두 불교의 세계관과 한국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법, 특정 지역의 환경 등을 설명하고, 사찰음식을 체험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설득적 문체로 쓰였다. 아랍권 독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낯설게 느끼는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적 기능과, 사찰음식을 홍보하는 작용적 기능이 강한 편이다.

표 1
분석 대상

	원문 제목	저자
1	욕망을 버리는 식사	문태준, 시인
2	삼라만상을 품는 음식	공만식, 동국대학교 중학연구소 연구위원
3	안온한 고향같은 한 끼	백영옥, 소설가
4	먹는 음식이 곧 ‘몸’이자 ‘인격’	박미향, 한겨레신문 음식문화 기자
5	차가 수행인 한 스님 이야기	박희준, 한국차문화학회 회장

전체 코퍼스는 다섯 개 텍스트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찰음식’이라는 주제 하에 일관성있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마치 하나의 긴 텍스트처럼 읽힌다. 분석을 위해 모든 기사문을 대제목과 소제목을 제외한 뒤 문단

11) 영역본을 함께 검토한 이유는 아랍어 번역문에 드러난 정보의 첨가·삭제 현상이 아랍어 번역사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는지 영어 번역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가늠하기 위함이다. 아랍어본과 영어본은 『코리아나』 웹사이트의 한국어본에서 언어 설정을 변경하여 열람 가능하다.

단위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문단을 하나의 사례로 취급하였다. 총 연구대상 문단(사례) 수는 107개이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리아나』 아랍어판 번역이 웹진 기사문의 유형적 특성과 스크포스를 감안하였으며, 목표문화권 독자를 지향하는 번역으로 수행되었다고 간주한다. 이 때, 협력의 원리를 따르는 이성적 행위자인 전문 번역사와 감수자, 편집위원장 등 번역 행위자들은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을 준수하거나 위반하거나 불이행함으로써 정보를 유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장에서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양의 격률 제1항(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과 제2항(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을 번역에서의 정보 유지 또는 첨가·삭제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관련성의 격률은 번역된 정보가 텍스트의 주제에 직접 기여하는가(준수), 아니면 의도적 일탈을 통해 함축을 유발하는가(위반)를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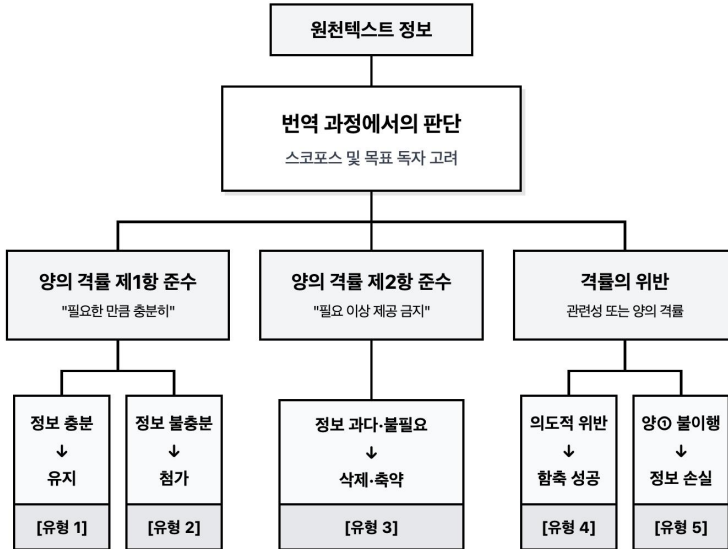
이러한 전제에 따라 번역문에서 관련성의 격률과 양의 격률이 준수되었거나 위반된 경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의 격률 제1항이 준수되어 정보가 유지된 경우
2. 양의 격률 제1항이 준수되어 정보가 첨가된 경우
3. 양의 격률 제2항이 준수되어 정보가 삭제·축약된 경우
4. 관련성의 격률 또는 양의 격률이 의도적으로 위반되어 함축이 유발된 경우
5. 양의 격률 제1항이 불이행되어 정보가 손실된 경우

또한, 이러한 다섯 가지 유형을 번역 과정에서의 정보 처리 프로세스로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이다.¹²⁾

12) 이 정보 처리 프로세스는 필자가 고안하였으며, 도식화하고 이미지 형식으로 출력하는 작업에만 제한적으로 제미니 3 프로(Gemini 3 Pro)의 캔버스(Canvas) 기능을 활용하였다.

그림 1
번역 과정에서의 정보 처리 프로세스



4.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정리한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한다. 원문과 번역문에서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이 작동한 부분을 볼드체로 표기하여 비교 분석하고¹³⁾, 최종적으로 대화 격률 바탕의 번역 분석이 『코리아나』의 사찰음식 특집기사와 같은 텍스트에서 적절했는지 검토해 본다.

13)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필자의 한국어 역번역을 함께 제공한다.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우행서(Right-to-Left, RTL) 언어인 아랍어 입력과 편집이 원활하지 않아, 아랍어 번역문의 강조 표기가 원문 및 역번역문과 일부 다를 수 있다.

4.1 양의 격률 제1항이 준수되어 정보가 유지된 경우

<예시 1>

한국어 원문 요약하자면 성철 스님의 식사법은 적게 먹는 것이었고, 욕심을 줄인 것이었다. 식물의 잎과 줄기, 열매를 섭취하되 그 수량에 제한을 두었고, 포만감이 들지 않도록 했다. 이 정도의 음식으로 과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다. 한 끼 식사를 오직 수행을 위한 약으로만 삼았고, 몸을 가까스로 지탱할 정도로만 취했다. 음식에 욕심을 내는 것은 도둑의 마음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에 대한 욕심은 게으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조심하셨다. (「욕망을 버리는 식사」)

아랍어 번역문 وباختصار، فإنه من الممكن وصف وجبات الراهب الموقر سونغ تشول بكلمة "التقشف". ولم يكن يأكل كمية كافية للشعور بالشبع، بل يأكل كمية محددة من الأوراق وسيقان النباتات العشبية والفواكه لدرجة أن بعض الناس كانوا يتساءلون عما إذا كانت هذه الكمية من الطعام تكفي للبقاء في صحة جيدة. كما أنه كان يتعامل مع كل وجبة طعام كما يتعامل المريض مع الدواء، لكي نكتمت من القيام بالممارسات الروحية، فلم يأكل سوى ما يكفي لسد الرمق والبقاء على قيد الحياة، لأنه كان يعتقد أن الرغبة في الزيادة من الطعام تشبه رغبة اللص في السرقة. وفضلاً عن ذلك، كان حذراً لئلا يقع في الإغراء. ويرى أن الرغبة في الطعام تؤدي إلى الكسل.

아한 역번역 성철스님의 식사법은 ‘금욕’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포만감이 들 정도로 많은 양을 먹지 않았고, 제한된 양만큼의 식물 잎과 줄기, 열매를 섭취했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 정도 양만 먹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할 정도였다. 성철스님은 매 끼니를 아픈 사람이 약 대하듯 하며 정신을 수양했고, 가까스로 생존을 유지할 정도로 소량의 음식만 먹었다. 음식을 더 먹고자 하는 욕망이 도둑질하고픈 마음같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스님은 또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했고, 음식 욕심이 나태함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예시 1>은 사찰음식에 갖든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 핵심 인물의 식사법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는지 등 식

사 철학을 상세히 설명하는데(정보적 기능), 아랍권 독자가 음식을 둘러싼 불교의 관점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보가 가감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비한국인 독자에게 한국 불교의 음식관을 알려주는 텍스트의 설명적 기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아랍어 번역 과정에서는 양의 격률 제1항(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을 준수하여 원문의 정보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이 구사되었다. 영어 번역본에서도 해당 정보가 충실히 유지된 것을 볼 때, <예시 1>에 포함된 내용은 영미권 목표 독자들에게도 필수적인 정보라 판단되었을 것이다.

<예시 2>

한국어 원문 기본적으로 절에서의 식사는 다른 것으로부터 식재료를 얻어 음식을 장만하되, 다른 것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려는 식사이다. 육식을 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흙과 물은 나의 옛 몸이고,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이다”라고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취하는 음식을 불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 (「육망을 버리는 식사」)

아랍어 번역문 في الأسس، الفكرة الرئيسة للأطعمة البوذية هي الحصول على المكونات من الكائنات الحية الأخرى بطريقة تسبب أقل ضرر ممكن لها. ولهذا السبب، تحظر البوذية أكل اللحم. ويقول كتاب بوذي: "التربة والماء هما جسدي القديم والنار والريح هما جوهرى". ويشير هذا القول إلى الفلسفة البوذية للطعام الذي نتناوله.

아한 역번역 기본적으로 불교 음식의 핵심 철학은 다른 생명들로부터 식재료를 얻되, 최소한의 피해만 끼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육식을 금한다. 불교 경전에서는 “흙과 물은 나의 옛 몸이고,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음식을 대하는 불교의 정신이 어떠한지 가리키고 있다.

<예시 2> 또한 불교의 음식관과 교리를 설명하므로 텍스트 전체의 주제와 긴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외국 독자들이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교 음식 문화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경우, 자칫 사찰음식을 인도

나 서구의 일반 채식과 유사하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살생을 금한다’는 한국 불교 특유의 교리 해석이 정확히 번역되어야 한다.¹⁴⁾ 영어본과 아랍어본 모두 해당 정보를 충실히 번역한 것으로 보아¹⁵⁾, 이 문단의 내용이 번역사들에게 텍스트의 정보적 기능을 위해 양의 격률 제1항이 요구하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양의 격률 제1항이 준수되어 정보가 첨가된 경우

<예시 3>

한국어 원문 불교는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이지만, **붓다** 시대 당시에는 극단적으로 **음식의 양을 줄이고 맛을 부정하는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의 고행주의적 태도와 달리 적절한 음식의 양과 맛을 부정하지 않는 중도적 음식관을 가졌다.
(「삼라만상을 품는 음식」)

아랍어 번역문 في عصر غوتاما بوذا الذي وضع أساس الديانة البوذية، كانت لدى البوذيين آراء معتدلة بشأن الأكل ولم اوغنامي في الاستهلاك المعقول للطعام والسعي إلى الطعم الجيد. وكانت آراؤهم مختلفة عن آراء الديانات الهندية الأخرى ومنها الديانة الهندوسية أو البراهمية التي أكدت على ضرورة الاقتصاد الشديد في تناول الطعام والتمتع به، والجائنية التي اتسمت بالتقشف القاسي وإماتة الشهوات الجسدية.

아한 역번역 불교의 기틀을 다진 **고타마 붓다** 시대에는 불교도들이 음식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적절한 음식 섭취와 미각 추구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는 **음식 섭취와 향락에 있어 극단적인 절제를 강조하는 힌두교나 바라문교, 엄격한 금욕주의와 육체적 욕망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는 자이나교**같은 여타 인도 종교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14) 인도의 채식은 힌두교·자이나교를 반영한 카스트 규범 및 종교적 전통 준수의 차원이며(Natrajan & Jacob, 2018, pp. 54-55, 58-59), 서구식 채식주의는 건강·윤리·환경 등의 동기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한다(Yoo & Yoon, 2015, p.115).

15) 여기서 사용된 “충실한 번역”이라는 표현은 노르트(1991, pp. 91-100)가 제시한 “loyalty” 즉, ‘문화 특유의 관습을 반영하여 원문 발신자와 목표 독자 양측 모두에 대하여 지는 책임에 가까운 의미이다.

<예시 3>을 보면, 번역문에서 원문에 없는 붓다의 성씨나 힌두교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었고, 바라문교와 자이나교의 식문화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 기사문은 타 종교와 대비되는 한국 불교의 음식관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정보적 기능), 텍스트를 관통하는 주제가 잘 전달되어야 한다. 목표텍스트 독자가 중동·북아프리카의 일반적인 아랍어 화자라고 상정하면, 상대적으로 불교와 인도의 타 종교(힌두교·바라문교·자이나교 등)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 볼 수 있다.¹⁶⁾ 이러한 독자에게 원문의 정보만으로는 불교 음식관의 특수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므로, 아랍어 번역 과정에서는 배경지식을 보충하는 정보가 첨가되었다. 이는 양의 격률 제1항(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을 준수하여, 목표 독자 친화적인 번역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 번역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배경지식을 보충하는 정보가 첨가되어 있으나 아랍어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특히 힌두교에 대한 언급은 아랍어 번역문에만 있다는 점에서, 아랍어 번역시 종교 관련 정보를 더 충분히 제공하려 했다고 보인다.

<예시 4>

한국어 원문 **기본에 충실한 음식은 부드럽지만 단단하다.** 제철, 로컬 음식을 기본으로 해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재료의 맛**을 음미하다 보면 씹는 속도가 저절로 느려져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든든해진다. (「안온한 고향같은 한 끼」)

아랍어 번역문 في هذا المطعم، يمكننا أن نتمتع بطعم طبيعي طازج للأطباق التي يحضرها المطعم باستخدام الخضراوات الموسمية المحلية. كما أن الأطباق هنا تنسم بطعم خفيف بعيد عن النكهة المالحة أو الحارة وغيرهما من النكهات التي اتدوّعت عليها. تغضّم الطعام ببطء لاستمتع بمذاقه وسرعان ما شعرت بالثبع التام على الرغم من أنني لم أكل كثيرا.

아한 역번역 이 식당에서는 현지 제철 채소로 준비한 음식의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의 요리는 우리가 익**

16) 해켓 등(Hackett et al., 2025, p. 105)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약 94%가 무슬림이며, 불교를 포함한 기타 종교의 비중은 각 1% 미만이다.

속하게 생각하던 짜거나 매운 등의 자극적인 맛과는 거리가 먼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그 맛을 음미하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금세 포만감이 느껴졌다.

<예시 4>의 원문에는 한국어 화자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에 충실한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이라는 표현이 있다. 한국 독자들이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맛 표현이지만, 아랍권 독자들이 이것을 사찰음식 특유의 맛과 연관지어 상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아랍어 번역문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음식”을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맛”이라 구체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은 “우리(한국인)에게 익숙한, 짜거나 매운 자극적인 맛이 아닌 담백한 맛”이라고 표현하며 정보를 첨가하였다. 해당 부분의 영어 번역문은 이 두 부분을 합쳐 “mildly seasoned”라고만 언급하고 추가 정보를 삽입하지 않아 오히려 정보를 축약한 느낌이었다면, 아랍어 번역문에서는 독자의 기존 미각 경험과 연결짓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내용 첨가가 이루어져 정보적·표현적·작용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아랍어 번역이 양의 격률 제1항(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을 준수하여, 원문의 추상적 표현을 아랍권 독자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해설한 것이라 생각된다.

4.3 양의 격률 제2항이 준수되어 정보가 삭제·축약된 경우

<예시 5>

한국어 원문 “얘들아, 너네들 밥은 먹었니?”
 근처 문경대학교 학생들이 피크닉을 하다 절까지 찾아온 모양이었다. 점심을 먹었다는 아이들에게 스님이 주방에서 가져온 파배기 도너츠를 나눠 주었다. 학생들은 파배기를 든 손으로 연신 봄꽃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1안 온한 고향같은 한 끼)

아랍어 번역문 |전체 삭제

아한 역번역 |전체 삭제

<예시 5>는 기사문 「안온한 고향같은 한 끼」 속 소제목 「마음의 안전지대」 하의 첫 문단이며, 아랍어 번역 과정에서 문단 전체가 삭제되었다. 이 텍스트에는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음식으로 치유받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연이어 등장한다. 글 전반의 정서를 표현하는 기능이 있으나, 후행하는 다른 에피소드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한국 독자들이라면 가벼운 도입이나 장면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외국 독자들이 이 장면만으로 ‘아이들의 끼니를 걱정하고, 이미 밥을 먹었다니 간식이라도 들려 보내 고픈 스님의 마음’까지 해석하기에는 상당한 추가 정보와 인지적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예시 5>의 에피소드는 목표 독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정보’로 여겨져, 양의 격률 제2항에 따라 번역 중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영어본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 조정이 아랍어 번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 6>

한국어 원문 이곳은 2012년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뒤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손님이 늘자 지인이 서울에서도 이 집의 음식 맛을 보여 주고 싶다고 해서 분점을 냈다. 하지만 재료비를 구하는 수고로움과 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식당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 분점은 1년쯤 후 그만두었다.
(「안온한 고향같은 한 끼」)

아랍어 번역문 2012، أصبح هذا المطعم مشهورا بعد عرضه في برنامج تلفزيوني عام مما أدى إلى ازدياد عدد الزبائن بشكل كبير

아한 역번역 이 식당은 2012년에 TV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유명해졌고, 이후 고객 수가 크게 증가했다. [삭제]

<예시 6>의 경우, 영어 번역문에서는 한국어 원문의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아랍어 번역문에서는 원문에 존재했던 ‘서울 분점’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었다. 사찰음식 전문 식당을 소개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직접 체험을 장려하고(작용적 기능) 추후 한국에서 실제로 방문할 법한 곳을 알려주려는(정보적 기능)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사 출간 시점에 서울 분점은 이미 폐점한 상태이므로, 이 정보는 아랍권 독자들에게 실용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과도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정보는 양의 격률 제2항(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을 준수하여 삭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⁷⁾ 영어본에서는 해당 정보가 유지되어 있으므로, <예시 6>의 정보 조정은 아랍어 번역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4 관련성의 격률 또는 양의 격률이 의도적으로 위반(flouting)되어 함축이 유발된 경우

<예시 7>

한국어 원문 스님이 고회가 되었을 때 주변의 권유로 쓰던 차 도구를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다. 2017년 가을에 열린 이 전시회 제목은 <여연 스님의 차살림>이었다. 당시 스님이 전시회 도록에 썼던 권두언에 **차에 대한 그분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차가 마음이면 차 그릇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물을 끓이며 달빛 가득한 빈 산의 솔바람 소리를 듣고, 차를 따르면 내 마음은 작은 시내를 따라 거닐다가 바위에 앉아 있다. 봄아지랑이 아른대는 찻잔을 가만히 기울이면 하늘 개인 대숲처럼 내 마음에 푸르름이 일렁인다.” 나는 그렇게 **댓잎 하나에 내려 앉은 마음 하나를 보았다.** (「차가 수행인 한 스님 이야기」)

아랍어 번역문 علماء، أقام الراهب معرضاً عرض فيه أدوات 70 حيث بلغ عمره 2017 في عام الشاي التي استخدمها. وفي مقدمة دليل المعرض كتب ما يلي:
الشاي هو القلب وفنجان الشاي الوعاء الذي يحتضن القلب. عندما أغلى الماء، أسمع صوت الرياح تمر بين أشجار الصنوبر التي نشأت في الجبل الذي تتساقط فيه أشعة القمر. عندما أصب الشاي، أشعر بأنني أتجول على طول الجدول الصغير ثم أجلس على صخرة. وعندما برّقاً ببطء فنجان الشاي الذي يملأه الضباب الربيعي من ينفثه أشعر بأن الرياح الزرقاء تهب في قلبي مثلما تهب الرياح في غابة الخيزران.

17) 텍스트의 설명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독자들에게 필요했던 식당의 최신 소식이 누락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예시 6>은 4.5 (유형 5)로 분류가 변경된다.

아한 역번역 2017년에 스님은 고회를 맞아 사용했던 다기를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도록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삭제]:

“차는 마음이고 찻잔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물을 끓일 때면 달빛 비치는 산에 자란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차를 따를 때는 작은 시냇가를 거닐다가 바위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다. 봄아지랑이 아른대는 찻잔을 입술로 천천히 가져올 때면 대숲에 바람이 불 듯 내 마음속에도 푸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낀다.” [삭제]

<예시 7>의 한국어 원문에서는 인용문 앞에 “차에 대한 그 분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해설을, 인용문 뒤에는 필자의 감상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아랍어 번역문에서는 이 두 부분이 모두 삭제되었기에 독자는 아무런 안내 없이 시적 인용문을 대면하게 된다. 양의 격률 제1항(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관련성의 격률 면에서도 텍스트 주제에 직접 기여하는 해설이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설의 부재는 단순한 정보 손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격률 위반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원문에서는 해설이 인용문의 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수동적으로 의미를 수용하게 되지만, 번역문에서는 해설이 사라짐으로써 독자가 시적 인용문과 텍스트 전체 맥락과 시적 인용문 사이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이 추론 과정에서 독자는 ‘차를 대하는 행위가 곧 수행이자 마음의 수양’이라는 텍스트의 핵심 주제를 곱씹게 되고, 텍스트가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함축된 주제의식을 더욱 강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누린다. 영어 번역문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 여운을 주며 주제를 음미하도록 유도하는 서술 기법은 특정 문화권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영미권과 아랍권 상관없이 적용 가능해 보인다.

4.5 양의 격률 제1항이 불이행(violation)되어 정보가 손실된 경우

<예시 8>

한국어 원문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고 강원도의 할머니 집으로 잠적하듯 떠난 사람의 얘길 들었다. 울음으로, 침묵으로 보내던 며칠, 배가 고파 밥을 지어 먹다가 문득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것은 야근이 계속되던 날, 편의점 도시락, 칩라면, 샌드위치로 바쁘게 때우던 끼니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지은 밥이 주는 힘이였다. 어느 날은 머릿속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몸이 하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위장이 꼬르륵거린다, 밥 짓는 냄새가 좋다, 밥알이 달다 같은 우리의 위장이, 코가, 혀가 속삭이는 이야기 말이다. (「안온한 고향같은 한 끼」)

아랍어 번역문 في بعض الأحيان، أتمنى أن أتذكر ما يقوله جسدي وليس الصوت العالي الذي يدخل رأسي. بعبارة أخرى فإنني أريد أن أسمع الكلام الذي يهمس به بطني وأنفي ولساني، مثل “رائحة الطعام جذابة للغاية” أو “طعم الأرز طيب جدا”.

아한 역번역 [삭제] 때로는 머릿속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몸이 하는 말을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다. 다시 말하자면, 뱃속이나 코, 혀에서 속삭이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다. 예를 들어, “음식 냄새가 너무 좋다.”거나 “밥이 정말 맛있어.” 같은 이야기 말이다.

<예시 8>의 번역문에서는 한국어 원문에 존재하던 특정 에피소드 전체가 삭제되어 있다. 원문은 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강원도의 할머니 집에서 음식을 통해 삶의 의지를 되찾는 과정을 묘사하고, 이를 통해 ‘정성들인 음식이 주는 치유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양의 격률 제1항(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에 비추어 보면, 독자에게 텍스트 전체의 정서를 이해시키고 내용의 흐름을 알려주기 위해 이 에피소드가 그대로 번역되는 편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와 아랍어 번역문 모두가 에피소드를 삭제함으로써 외국 독자들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파스한 정서를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내용 흐름도 어색하게 변경되었다. 의도적 위반

을 통해 특수한 효과를 노린 번역 전략(4.4의 예시 7)과는 달리 내용 삭제가 텍스트의 기능만 저해하였으므로, <예시 8>은 번역문이 양의 격률 제1항을 불이행하여 필수 정보가 손실된 경우라 보인다.

<예시 9>

한국어 원문 주인은 “사찰 음식을 만든다기보다 몸에 좋은 집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한다”고 했다. 이 집의 음식은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등 맛과 향이 강한 오신채를 쓰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화학 조미료나 **육류, 어류, 젓갈류**를 일체 쓰지 않은 채식 식단으로 꾸려져 있다. 어떤 음식이든 간을 세게 하지 **않아 짜고, 달고, 강한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미각을 순하게 만든다.** (「안온한 고향같은 한 끼」)

아랍어 번역문 قال صاحب المطعم، "أقدم أطباق المعبد، لكن أهداف في نهاية المطاف، تقديم الأطعمة المنزلية المغذية واللذيذة". لا يستخدم هذا المطعم الخضراوات الخمس ذات الرائحة الشديدة، وهي الثوم والبصل الأخضر والثوم المعمر البري والثوم الصيني وسمغ الحلتيت، فضلا عن محسنات النكهة الاصطناعية.

아한 역번역 식당 주인은 “사찰 음식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영양가 있고 맛있는 가정식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식당은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등 향이 강한 다섯 가지 채소와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삭제]**

<예시 9>에서는 사찰음식이 오신채와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류, 어류, 젓갈류를 일체 배제한 채식 식단이라는 정보와, 간을 세게 하지 않아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미각을 순하게 만든다는 정보가 삭제되었다. 이 정보는 사찰음식이 채식 식단의 스펙트럼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며(정보적 기능), 영어 번역문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아랍어 번역에서는 이 정보가 삭제됨으로써, 아랍권 독자들에게는 양의 격률 제1항(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이 요구하는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 달리 함축을 유발하겠다는 특수한 의사소통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판단되며, 이 사례는 양의 격

를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보가 손실된 예시라 할 수 있다.

4.6 분석 결과

『코리아나』 웹진의 사찰음식 특집호 기사 다섯 편을 문단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총 107개 사례를 3장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유형과 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2
분석 결과

유형	대화 격률 실현 양상	사례(건)
1	양의 격률 제1항이 준수되어 정보가 유지된 경우	66
2	양의 격률 제1항이 준수되어 정보가 첨가된 경우	8
3	양의 격률 제2항이 준수되어 정보가 삭제·축약된 경우	23
4	관련성의 격률 또는 양의 격률이 의도적으로 위반되어 함축이 유발된 경우	1
5	양의 격률 제1항이 불이행되어 정보가 손실된 경우	4
기타	유형 1-5로 분류 불가능	5
총합		107

분석에 따르면, 전체 107개 사례 가운데 양의 격률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여 정보를 유지·첨가·삭제한 경우가 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양의 격률 제1항(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을 준수하여 아랍어 번역문에서도 정보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유형 1)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제1항을 준수하였지만 독자의 배경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정보를 첨가한 경우(유형 2)도 8건 확인되었다. 한편 양의 격률 제2항(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을 준수하여 목표 독자에게 과도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삭제·축약한 경우(유형 3)는 23건이었다.

번역문에서도 원문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의 건수가 66건으로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유형 1), 번역을 통해 정보의 양에 변화를 준 사례(유형

2와 유형 3)도 총 31건에 달하여 적지 않았다. 이를 통해, 『코리아나』 웹진 사찰음식 특집 기사문의 이랍어본이 한국어 원문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격률의 의도적 위반으로 분류된 사례(유형 4)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예시 7>은 한국어 원문에 존재하던 해설부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영어와 이랍어 번역이 독자의 능동적 추론을 유도하고 함축된 주제의식을 환기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유형은 극히 드물었는데, 번역 대상 기사문의 주제가 ‘사찰음식’이라 비한국인 독자에게 생소한 만큼, 함축을 의도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텍스트의 정보적·작용적 기능에 더 적합했기 때문 이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 양의 격률 제1항을 불이행하여 필요한 정보가 손실된 경우(유형 5)는 네 건이었다. <예시 8>과 <예시 9>에서 확인하였듯이, 이 유형은 텍스트의 정보적·표현적 기능에 필수적인 정보가 손실되어 독자 친화적이지 않은 번역으로 귀결되었다. 이를 통해,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례(유형 4)와는 달리, 격률을 불이행한 번역은 텍스트의 스킴포스 달성을 명백히 저해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삭제가 모두 전문 번역사가 의도한 전략의 산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인에 의한 실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기타로 분류된 다섯 건은 한 문단 내에서 정보의 첨가와 삭제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불규칙한 양상을 보여, 특정 격률의 준수나 위반, 불이행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특히 분석 대상 예시 107건 모두 같은 번역사가 같은 기간 내에 생산한 것이라 비교적 일관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건의 사례에서는 정보 조정의 의도를 가늠할 수 없어, 체계적 전략에 기반한 정보 처리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웹진 기사문 텍스트의 이랍어 번역문에서 드러난 정보의 재구성 양상을 그라이스(1975/1989)의 대화 격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스코프

스 중심 번역에서 이 이론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학 웹진 『코리아나』의 사찰음식 특집기사 다섯 편을 선정하여, 107쌍의 한국어-아랍어 병렬 문단을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에 초점을 맞추어 정성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랍어 번역문에서는 양의 격률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여 정보를 유지하거나 적절히 조정한 사례가 대다수였으며, 이는 텍스트의 다기능적 특성과 스킴포스를 고려한 번역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랍권 독자에게 생소한 한국 불교의 사상과 식문화를 설명하고 홍보한다는 목적에서, 한국어 원문의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거나(유형1), 독자의 부족한 배경지식을 보충해 주거나(유형 2), 인지적 부담을 줄여 주는(유형 3) 전략이 다섯 개 텍스트 전반에서 관찰되었다.

한편 양의 격률 제1항이 불이행되어 필요한 정보가 손실된 사례(유형 5)가 네 건 확인되었고, 번역 중 정보 조정의 방향성이 일관적이지 않은 사례(기타)도 다섯 건이 있었다. 이렇게 독자 친화적이지 않은 번역 사례는 번역문의 정보 재구성이 언제나 번역 행위자의 의도된 전략은 아니며, 오역 또는 실수에서 비롯된 결과물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코리아나』 웹진이 복수의 행위자가 관여하는 다층적 출판 번역임을 감안할 때, 정보 조정을 결정하는 최종 행위자가 번역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으며, 모든 결정이 늘 명확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기 무리인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조의연과 조숙희(2018)가 설명한 바와 같이 번역에서의 첨가와 생략 현상을 간문화적 특성을 이해한 번역사의 다시쓰기 활동으로 보고, 그라이스 대화 격률의 유용성을 웹진 기사문이라는 새로운 텍스트 유형, 한국어와 아랍어라는 새로운 언어쌍으로 검증 시도했다는 데 있다. 연구 과정에서 정보 유지 또는 첨가·삭제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도구로 양의 격률을, 격률의 의도적 위반 또는 불이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조적 도구로 관련성의 격률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웹진의 매체 특성과 기사문이라는 텍스트 유형, 아랍어 번역문의 스킴포스를 고려하여, 격률의 준수나 위반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도 함께 고찰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번역문에서 발견되는 정보 재구성 양상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동기와 효과, 적절성을 평가해보려 시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텍스트를 번역한 번역사와 직접 인터뷰를 시행하지 못하였기에, 대화 격률을 활용한 번역 분석이 다소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분석한 텍스트의 유형과 규모가 제한적이고, 아랍어 번역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했기에 연구 결과를 모든 텍스트 유형의 모든 언어쌍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네 가지 대화 격률 중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에 집중하였으므로, 질의 격률과 방법의 격률을 다루지 못한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분석틀을 강화하고 분석 대상을 다양화하여 그라이스 대화 격률 이론의 번역 연구 유용성을 재차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코리아나』 기사문을 다시 활용하게 된다면, 다국어 번역임을 감안하여 여러 언어의 번역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라이스의 이론 관점에서 연구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다룰 영역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공만식. (2019, 봄). 삼라만상을 품는 음식 [طعام يحتضن الكائنات / Eating as communion with all creation]. 코리아나. <https://bit.ly/40nA6ej>
- 문태준. (2019, 봄). 욕망을 버리는 식사 [وجبة خالية من الجشع / A meal shedding greed]. 코리아나. <https://bit.ly/4u11IsD>
- 박미향. (2019, 봄). 먹는 음식이 곧 ‘몸’이자 ‘인격’ [ما يمتلك هو ما تأكله / You are what you eat]. 코리아나. <https://bit.ly/4dhkb8Q>
- 박희준. (2019, 봄). 차가 수행인 한 스님 이야기 [حكاية راهب مع الشاي / A monk's way of tea]. 코리아나. <https://bit.ly/4rnSL4v>
- 백영옥. (2019, 봄). 안온한 고향같은 한 끼 [وجبة تهدئ الروح وتحرك الحنين / Soul-soothing food evokes home]. 코리아나. <https://bit.ly/414ea84>

<2차 자료>

- 구상분. (2023). 영한 문학번역에서 문체 반영의 평가도구로서 그라이스 격률의 유용성: The Old Man and the Sea의 인용동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1), 163-191.
- 김도훈. (2012).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응용한 번역 격률: 한-영 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1), 7-31.
- 김재희. (2008). 문화 관련 어휘 (Culture-bound terms) 번역 방법 연구 — 코리아나 아랍어 번역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0(1), 25-43.
- 모두디자인. (2022. 2. 21). 매거진을 언제 어디서나 경험한다 '웹진'. <https://bit.ly/4ls2K7R>
- 이근희. (2009). 스키포스 이론을 토대로 한 번역 비평 — 사례 연구 더빙 영화, <빨간 모자의 진실>. 번역학연구, 10(2), 61-82.
- 이준복. (2002. 9. 11). [사이버문화따라잡기] 웹진(1) 탄생과 성장. 전북일보. [보도자료]. <https://www.jjan.kr/article/20020910071295>
- 이향. (2008). 베르만의 형태의(Lettre) 개념 속에 드러난 번역가의 정체성: 스키포스(Skopos) 및 협력(Cooperation) 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23, 429-450.
- 조의연, 조숙희. (2018). 번역연구에서 그라이스 대화 격률의 유용성. 번역학연구, 19(5), 155-172.
- 한국국제교류재단. (n.d.). *About Koreana*. 2025. 12. 21. 검색, <https://bit.ly/4lpX6D7>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Routledge.
- Buzelin, H. (2005). Unexpected allies: How Latour's network theory could complement Bourdieusian analyses in translation studies. *The Translator*, 11(2), 193-218.
- Fawcett, P. (1997). *Translation and language: Linguistic theories explained*. St. Jerome Publishing.
- Grice, H.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5)

- Hackett, C., Stonawski, M., Tong, Y., Kramer, S., Shi, A., & Fahmy, D. (2025). *How 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 changed from 2010 to 2020*. Pew Research Center. <https://pewrsr.ch/40rj7ry>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Anchor Press.
- Hatim, B., & Mason, I.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gman.
- Huang, Y. (2014). *Pragmatic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1996). On actor-network theory: A few clarifications. *Soziale Welt*, 47(4), 369-381. (Original work published 1990)
- Margala, M. (2009). Grice in translation: The case of Hrabal. *Journal of Universal Language*, 10(2), 87-128.
- Mateo, J. (2005). Adjusting Grice's maxims to the translation of English into Spanish. In J. Mateo & F. Yus (Eds.), *Thistles: A homage to Brian Hughes. Essays in memoriam* (Vol. 2, pp. 223-242). University of Alicante.
- Munday, J., Ramos Pinto, S., & Blakesley, J. (202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5th ed.). Routledge.
- Natrajan, B., & Jacob, S. (2018). 'Provincialising' vegetarianism: Putting Indian food habits in their place. *Economic & Political Weekly*, 53(9), 54-64.
- Nord, C. (1991). Skopos, loyalty, and translational conventions. *Target*, 3(1), 91-109.
- Nord, C. (2006). Loyalty and fidelity in specialized translation. *Confluencias*, 4, 29-41.
- Reiss, K. (2000). *Translation criticism: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E. F. Rhodes, Trans.). St. Jerome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1)
- Reiss, K., & Vermeer, H. J. (2013). *Towards a general theory of translational action: Skopos theory explained* (C. Nord, Trans.).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Yoo, T., & Yoon, I.-J. (2015). Becoming a vegetarian in Korea: The sociocultural implications of vegetarian diets in Korean society. *Korea Journal*, 55(4), 111-135.

The usefulness of Grice's conversational maxims in webzine translation: A case study of Arabic translation in *Koreana*

Sun-gyung Kim (suadkimpf@hufs.ac.kr)

Department of Korean-Arabic,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usefulness of Grice's conversational maxims in translation studies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restructuring patterns in Korean-to-Arabic webzine translations. Building on previous research, it conceptualizes additions and omissions as strategic forms of "rewriting" that account for the specificities of the target culture. The analysis is based on 107 parallel paragraphs extracted from five feature articles on temple food published in the *Koreana* webzine. These text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with the maxim of quantity serving as the primary framework for identifying information restructuring, while the maxim of relevance played a supplementary role. The findings show that translators frequently add background information or remove redundant details to enhance accessibility for Arabic-speaking readers and to support the text's promotional skopos. Most instances of maxim observance lead to reader-oriented rewriting consistent with the skopos. In contrast, rare cases of maxim flouting generate implicatures that reinforce thematic emphasis, while cases of maxim violation result in information loss. Overall,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onversational maxims provide an effective analytical framework for identifying translation strategies in digital media, particularly for underexplored language pairs such as Korean and Arabic. The results strengthen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ranslators' intercultural interventions.

Keywords: Conversational maxims; webzine translation; *Koreana*; translation into Arabic; translation strategy

키워드: 대화 격률, 웹진 번역, 코리아나, 한아 번역, 번역 전략

김선경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아과 특임강의교수

suadkimpf@hufs.ac.kr

논문 투고일: 2026년 2월 12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3월 16일